

광주 곳곳 '드라이브 스루' 교통체증 유발...해결책 없나

카페 등 40여곳...차량 대기 행렬에 차선 막히고 보행자 위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해당 안돼...“관련 법 등 개정돼야”

“출·퇴근 시간대 DT 주변은 교통 체증이 배로 느껴지는데 교통 지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23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카페 앞 편도 4차선 도로로는 사실상 3차선 도로였다. 4차선에 멈춰있던 차들은 앞차가 움직일 때만 천천히 이동했는데, 이는 이들 모두 인근 카페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서비스-이하 DT)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 탓에 버스 전용차로인 이곳 4차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 이곳 4차로로 진입한 한 차량은 이유 모를 정체에 경적을 울린 뒤 빠르게 옆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보행로를 따라 DT 진입로를 지나가던 한 보행자는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들어오는 차량에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곳을 자주 지난다는 양모(30대)씨는



23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카페의 드라이브 스루(DT) 앞 도로가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를 겪고 있다. /장은정 기자

“점심시간만 되면 DT 이용 차량들로 한 차선이 마비되는 게 일상”이라며 “안내 요원이 있긴 하나 입구 바로 앞에서 진입하는 차량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상무지구 주민 임모(26·여)씨도 “이곳뿐만 아니라 DT가 있는 매장 진입로

인근 차선은 항상 막히는 것 같다”며 “출·퇴근 시간대 DT 주변은 교통 체증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데, 교통 지도를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기준 광주지역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40여 곳에서 DT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

악됐으나, 주변에서 경찰 등의 교통 지도가 이뤄진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DT 매장 같은 개인 사업장은 교통 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체에서 직접 교통 혼잡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대포 성격으로 메길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도 1천㎡ 미만 시설은 예외인데, 이 탓에 광주에 있는 DT 모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DT 매장들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더라도 현행법상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대근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DT 매장이 증가한 교통 불균형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장은정 기자



23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장애인지원사업협의회 결의대회'를 마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문화전당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마련돼야”

광주장애인 등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지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실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

에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지역 내 2만7천여명의 중증 장애인 등의 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공주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광주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새빛콜) 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4회

로 제한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광주에선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의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찾기 어려우며, 심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 여성들을 위한 쉼터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이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시청 앞까지 이동, 앞선 주장들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장은정 기자

“익명 글 게시자 찾겠다” 압수수색 영장 복구청 ‘슬렁’

구의원, ‘비방글’ 명예훼손 고소에 법원 강제수사 허가

현직 북구의원이 공직자 익명 게시판을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서 복구청 내부가 슬렁이고 있다.

23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로부터 지난 19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5일 A 북구의원이 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A 의원의 고소에 앞서 같은 달 22일 복구청 북구의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세

울 자유게시판엔 ‘아니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수의계약 비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A 의원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북부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초기 북부경찰청은 복구청에 게시글 작성자를 찾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복구청이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북부경찰청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복구청 공직자들은 익명 게시판의 글쓴이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를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구청 한 공직자는 “새울 게시판을 공직자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런 식이면 발전적인 비판 의견도 게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북부경찰청의 협조 요청에 대해 복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10대 지적장애인 사망’ 공동살인 규명

10대 지적장애인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살인임을 밝혀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중학생 C(14)양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1일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근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다가 선착장으로 간 A씨와 B군은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했다.

A씨와 B군은 피해자의 가위바위보 ‘패턴’을 파악해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으며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했는데, 겁에 질려 거부하자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

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건 후 B군과 C양은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했다.

이에 해경은 A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송치했는데 검찰은 CCTV 회로 등을 추가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트린 사실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 추가로 입건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p>NEW 우라칸 SH-1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우라칸 SH-2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블리스 GOLD</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마스터즈 CH-15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마스터즈 CH-20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	---	---	--	--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